

‘새벽 출근, 한밤 퇴근’ 직장인들은 피곤하다. 하루 종일 일에 치이고, 몸과 마음은 늘 쫓기며 산다. 잠시 틈이라도 나면 쉬기도 바쁘다. 여유롭게 책장 넘기는 것, 아무래도 힘들다. 직장에서는 주위로부터 꽃히는 ‘눈총’이 만만치 않고, 집에서는 마음 내기도 어렵다.

일터불자들도 꽃기며 살기는 마찬가지다. 하지만 다른 점이 있다. 틈틈이 시간을 쪼개 불서를 읽는다는 점이다. 출·퇴근과 점심시간, 잠자리 들기 전 등 틈만 나면 불서를 집어 드는 불자들이 적지 않다. 매일 매일 ‘종이거울’에서 마음을 본다는 일터불자들, 이들의 ‘불서 읽기’ 노하우를 들여보자.

손에 든 불서 한권 인생의 보배창고

틈틈이 읽으며 지식 쌓고 지혜 길러
책벌레 되기 의외로 쉬워... “지금 도전을”

‘날카로운 첫 키스에 눈이 멀다(?)’

한국은행 불교회 간사장 하용이 국장(52·자운, 금융계 투신 29년간 <금강경>을 늘 끼고 생활했다. 1968년 고등학교 생 시절 처음 접한 <금강경>.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가 허망하다. 만약 모든 형상을 형상이 아닌 것으로 보면 곧 여래를 보리라’는 사구게 처음 구절은, 만해 스님이 남긴 ‘님의 침묵’의 한 구절처럼 잊지 못할 불교의 첫 경험이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 기억은 하 국장을 ‘독서광’으로 만들었다. <천수경>, <법화경>, <초발심자경문> 등의 경론은 기본, 일주일에 한번은 불교전문서점 ‘여시아문’ (서울 종로구)에서 신간 서적을 구입해 쪽쪽 다 읽었다. 이유는 간단했다.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였다. 부처님의 생생한 원음을 경전에서 듣고, 세상 보는 눈을 넓히고 싶어서다. 또 일터에서 불교식 처세술을 찾기 위해 불서를 탐독했다.

틈틈이 읽은 불서는 하 국장에게 든든한 ‘지혜창고’가 돼 주었다. 특히 ‘스님의 설법이 어렵다고 생각(懸懸想)을 내어 물러나는 마음을 내거나, 자주 들었다는 생각(慣聞想)을 지어 가볍게 여기는 마음을 내지 말라’는 <초발심자경문> 경구는 직장인으로서 생활하는데 훌륭한 지침이 됐다. ‘지레 짐작 일을 두려워하거나 하지도 않고 안 된다’는 선입견을 날려버리게 했다. 덕분에 하 국장은 직장 선·후배는 물론, 동료간 화합을 이끄는 리더십을 얻게 됐다. 80년부터 4년간 잇따라 3명의 한국은행총재비서를 맡을 때 신임을 받았던 것도, 92년 급여과장 시절 한국은행 강성노조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시킨 것도, 국장이 되면서 부하직원들에게 두터운 신망을 받게 된 것도 여기서 비롯된다.

“불서는 그때그때 필요한 순간, 돈을 꺼내어 쓸 수 있는 지혜의 금고입니다. 일이든 문제가 생겨도 틈틈이 읽어놓은 불서는 언제나 해결의 실마리를 던져주었으니까요.”

성철 스님의 <영원한 자유의 길>을 요즘 읽고 있는 서울 지방경찰청 경비과 작전계 신종기 경위(41·대광도 불서는 자기반성의 ‘거울’이라고 말한다. 바쁜 일터불자들에게 불서는 법당도 스승도 된다는 것이다. 신 경위가 매일 1시간 일찍 출근해 ‘불서의 세계’로 빠져드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이렇게 불서 읽기를 틈틈이 해온 결과, 신 경위는 최근 1주일간 진행된 민·관·군 합동 을지훈련연습을 성공적으로 마치는 데 큰 힘을 얻었다. 땀땀한 훈련 일정으로 집에는 못 들어가고 일선 파출소에서는 수십 통씩 문의전화가 걸려올 때면, 짜증과 피곤은 극에 달했다. 하지만 그 순간, ‘웃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구’라는 <법구경>의 경구가 머리를 번개같이 스쳐갔다. 그리고 반성이 들었다. ‘오죽 답답했으면, 내게 전화해서 물어보셨다’ 싶었다.

“소중한 경구나 구절을 차근차근 마음에 담아두려고 노력했지요. 그러다보니 일상생활 속에서 겪게 되는 갖가지 일들을 넉넉한 마음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더군요.”

‘읽어서 남 주자’

공무원 생활 36년째인 춘천시청 도반회장 정상현 지적과장(55·혜수), 정 과장은 지적과 직원 40명의 생일에는 언제나 불서를 선물해 준다. 이번 달에는 최근 발간된 법정 스님의 책 <홀로 사는 즐거움>을 네 권 사놓았다. 종교가 다른 직원들이 불서 받기를 꺼려할 만도 하지만, 정 과장이 10년 넘게 불서로 선물을 해오다보니 지금은 누구나 기쁘게 선물을 받아 든다. 종교와 상관없이 나누는 따뜻한 마음에 이제는 직원들이 정 과장에 불교에 대해 이것저것 묻는다.

정 과장은 이렇게 직원들에게 불서를 선물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한다. 직원들이 원하는 불서를 고르기 위해 불교계 신문에서 정보를 얻는다. 신간 기사를 꼼꼼히 읽고, 어떤 책인지 정보를 메모한다. 그리고 선물할 책과 관련 기사

여름특별기획-일터불심 10대 화두

- ① 일터, 마음 닦는 수행처
- ② 직장 동료·상사·후배, 모두를 도반으로
- ③ 아직도 출퇴근 시간에 출고 있습니까?
- ④ 하루 5분 수행, 인생이 달라진다.
- ⑤ 스트레스, 불교에 치유법 다 있다.
- ⑥ 술과 담배 그리고 과식은 수행의 적
- ⑦ 불교 계대로 믿으면 저절로 부자 된다
- ⑧ 한달에 한번 집중수행 필요
- ⑨ 틈틈이 읽는 불서, 인생을 풍요롭게
- ⑩ 인터넷은 수행정보의 보고



틈틈이 읽는 불서는 일터불자들의 신심을 키우는 지혜창고가 된다. 사진은 강원도 춘천시청 도반회 회원들이 퇴근후 함께 불서를 탐독하고 있는 모습. (현대불교 자료사진)

를 함께 직원에게 준다. 좀더 불서에 대한 흥미를 가질 수 있기 위해서다.

정 과장이 이렇게 불서시를 해온 이유는 무엇일까? 알면 알수록 유익한 내용을 혼자만 갖기에는 너무도 아까웠기 때문이다. 또 아까는 이의 인생에 새로운 취미를 하나 더 보태는 계기도 됐기에 지금껏 불서 선물을 주고 있다.

“배워서 남 주자”라는 말도 있지요. 저는 ‘읽어서 남 주자’를 실천해왔습니다. 처음에는 불교 이야기를 일반적으로 꺼내면 직원들이 부담스러워 하더군요.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책으로 주는 거였습니다. 자연스럽게 포교도 할 수 있으니 일거양득인 셈이지요.”

하루라도 그냥 지나치지 말자

정 과장은 불서를 읽는 것은 마치 ‘밥 먹는 것과 같다’고 강조한다. 하루라도 그냥 지나치지 말라는 것이다. 손닿는 곳에 읽을 책을 가져다 놓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설명한다. 화장실이든 침대 위든 사무실 책상이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책 읽을 여건을 만들라는 주문이다.

“‘시간 없다, 여유 없다’는 변명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불서 읽는 것을 수행으로 생각해 해요. 수행이 생활화되면 수행력에 탄력이 붙어서 독서도 매한가지입니다.”

신종기 경위도 마찬가지 생각이다. 틈만 나면 불서를 읽으라는 것이다. 대신 신 경위는 ‘얕고 쉬운 불서’부터 읽으라고 말한다. 지루하고 어려운 내용의 불서는 오히려 독서의 지를 꺾을 수 있기 때문이란다.

신 경위는 불서에 흥미를 갖기 위해 불교기초교리 또는 입문 관련 책부터 정독할 것을 주문한다. 불교기초지식이 바탕이 돼야 다양한 불서를 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난 후, 경전을 읽으면 각자에게 불교의 세계가 스스로 열리게 된다는 것이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 지상중계-제1기 지혜경영아카데미

고정관념 버리는 것이 최고 경영자의 첫걸음

최고의 경영자가 되고 싶은가? 지혜경영연구소(대표 손기원)가 마련한 제1기 지혜경영아카데미(9월 8일)는 지혜로운 사람이 최고 경영자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신념을 되새겨 준 자리였다. 강사로 나선 손기원 대표는 “지혜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선 고정관념을 버려야 한다”면서 3시간에 이르는 강의를 시작했다.

것이고 그 원인에 대한 해결의 가능성이 타진될 것이다. 해결 가능성을 타진하는 과정을 거쳐 실행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지사.

지혜 경영의 키워드 혹은 화두로는 4가지로 꼽을 수 있다. ‘지금 여기’가 첫 번째. 과거와 미래에 대한 집착은 현실을 고통스럽게 버려야 한다”면서 3시간에 이르는 강의를 시작했다.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는 계속하여 ‘많이’와 ‘빠르게’를 요구한다. 그러나 ‘많이’가 행

“철저한 주의의식과 긍정적 견해 가져야”

보는 눈이 지혜다. 그런 눈으로 경영을 할 때 기업이란 개인이란 상생의 결과를 낼 수 있다. 어느 조직이건 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발전할 수 없다는 것은 바로 ‘전체중심의 사고’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증명하는 셈이다. 마지막 화두는 ‘주인공’이다. 인간은 자주적인 행동을 할 때 발전할 수 있다.

누구나 행복해 지길 원한다. 행복을 위해서는 나의 입장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의 입장을 충분히 생각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또 ‘만일’이라는 가정법을 대입해 문제를 들여다보고 ‘다행이다 감사하다’는 긍정적 견해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데서 행복을 얻을 수 있다.

정리=임연태 기자

지혜가 적용되어야 할 가장 급한 부분은 자기 경영과 사고 시스템의 혁신이다. 먼저 지혜로운 경영을 위해 우선 문제를 풀아가는 방법을 터득해야 한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먼저 그 문제를 깊게 넓게 들여다봐야 한다. 문제에 답이 있기 때문이다.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원인이 규명될

다. 화강암이든 침대 위든 사무실 책상이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책 읽을 여건을 만들라는 주문이다.



제1기 지혜경영아카데미 수업장면.

*기사남쳐 '우리불자회는요' 쉽니다.

길을 묻는 이에게 들려주는 대행 스님의 지혜의 말씀

삶은 꿈가 아니다



쉽고 명쾌한 대행 스님의 '웃는' 인생 이야기

때로는 아득막한 산허리를 돌아 흐르는 시냇물처럼, 나지막한 목소리였다가 한순간에 폭포수 같은 사자후를 토해 내기도 한다. 대행스님은 인양의 한마음선원에 계신다. 그러나 어디고 계신다. 오로지 만 생명이 자성을 밝혀 대자유의 세계로 들게 하기 위해 포교와 수행으로 정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23쇄

■ 대행 스님 법어 | 해원 스님 역음 | 254쪽 | 9,000원

왜 스님은 팬티만 입고 공중취조실에 있었을까?

스님이야기

법정·서암·명정·대오 스님 등 85명 수행자들의 일화를 모은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

최근 발간된 '스님이야기'는 지목·효림·현진 스님 등이 수행길에서 만난 스님 85명의 일화를 소개했다. 엄숙함의 배일을 걷고 보아도 수행자로서 고결한 자세와 인간미가 도드라진다.

- 조선훈보

합천 해인사 주지이면서도 절 주변을 돌며 관광객이 바린 담배꽂이와 유지를 주웠던 지필 스님, 코피 나오도록 연이땀에도 상대방에게 우묵질을 하지 않았던 두울 고수 대오 스님 등 다양한 수행승 이야기가 진솔하게 펼쳐진다.

- 동아일보

지목·허주·수완·정운·원숙 스님 등 15명의 스님이 편지로 나서 「무소유」의 저자 법정 스님, 전형적인 학자풍의 중앙승가대 총장 종법 스님, 20여 년 가까이 장좌불와, 오후분식을 해오고 있는 지유 스님 등 절에서 지켜본 스님들의 수행 모습을 솔직담백하게 독자들에게 전하고 있다.

- 연합뉴스



■ 지목 스님 의지음 | 448쪽 | 12,000원

DISCUSSION ABOUT CHANZEN) BUDDHISM

禪

문밖에 나서다

중국 선불교 다시 읽기!
그리고 되받아 쓰기!

중국 선사들의 선문(禪文)을 패치워크방식으로 새롭게 해석!

「禪, 문밖에 나서다」는 중국 선사들의 이야기를 한 군데에 모아 놓고, 내가 그동안 읽었던 책들, 또는 나의 짧은 생각들과 연계시켜 본 작품이다. 마치 고급 실로 짠 천 조각을 붙여 만든 조각보처럼.....

- 본문 중에서



■ 석해탈 저 | 456쪽 | 14,000원